

광주 교육계 수장은 어쩌다 구속 갈림길에 섰나

광주지검,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영장 청구
경찰 1년 수사 무혐의 처분 사건, 검찰 수사로 입건·압수수색
이 교육감측 “형소법 위반 위법 수사”…대법 재항고 심리중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현재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반 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교육감이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다보니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교육감 입장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안도하는 듯 했다가 검찰이 손을 대면서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형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B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접수기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2023년 8월 광주경찰청이 이 교육감과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혐의의有無)로 종결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했으며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이 교육감측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전달받은 뒤 법정 기한(3개월) 내에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취지로 준항고했다가 기각당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심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감사원에 의해 형사 고발된 이후 무속인에게 고총을 토로하면서 ‘윗선’을 언급한 점 등을 주요한 윗선 개입 정황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A씨와 무속인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 되기도 했다.

또 A씨가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다만 1심에서는 ‘윗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경위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권의 날 인권 배우는 유치원생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국·공립 ‘우산션이 나란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인권주간을 맞아 열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들려보낸 녹음기에 교사 학대 음성 고스란히 담겼다

전남청, 무안지역 초등학교

자폐아동 학대 의혹 수사 중

다수 교사들도 방임 정황 드러나

“아 이 X친새X야”, “일어나 이 새X야”, “이 새X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발달 장애, 중증 자폐를 갖고 있는 A(12)군에게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말이다.

급식실에서 교사를 건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였다. 교사들은 A군을 연수실로 끌고 가고 성과 육설을 쏟아냈다. A군은 “저 맞았어요. 경찰 신고해주세요”라고 호소했지만,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잡혀간다”고 말하며 오히려 A군을 육박질렀다.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증 자폐 학생이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아동 A(12)군이 교사로부터 폭언 등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군의 스마트워치 녹음 앱에 기록된 3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녹취록에는 교사들이 A군에게 육설을 하며 육박질하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낮 12시께 녹음된 기록에는 남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 이 X친새X야”라며 고함을 지는 소리가 담겼다. 해당 교사는 A군에게 “이 새X야 일어나! 무릎 끓어. 손 들어. 너 X쳤어? 이 새X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라며 연달아 고성을 질렀다.

한동안 육설이 이어진 뒤 다른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A군이 “선생님이 때렸다”고 호소하자, “네가 때렸다”, “경찰 부르면 네가 잡혀간다”고 쏘아붙이는 여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를) “진정 시키지 마세요”라는 소리도 들렸다.

A군 부모 측은 교사들로부터 ‘A군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뒤 녹음을 시작했다가 이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어른이 육을 하고 때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공포”라며 “우리 지역에는 특수학교도, 장애아동이 보살핌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도 없어 같은 학교에 A군을 계속 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학대 의혹이 제기된 학교장은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2월 9일 6면 ‘전남대, 이번엔 시간강사에 ‘갑질’?’ 기사의 내용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는 전남대가 1심 항소를 각하당한 데 재항고한 사안을 대법원이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로 바로잡습니다. 또 같은 기사의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는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도”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내

려진 사안에 제자 학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까지 내려진 사안에 제자 학소를 제기한 것이다”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퇴직금…”은 “1심에서 인정받은 퇴직금…”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기사 하단에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소송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문구를 추가합니다. 보다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 흉기 살해 50대 체포

보성경찰 살인 혐의 입건 조사

20여년 동안 같이 산 베트남 출신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살인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께 보성군 별교읍 회정리의 한 주택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흉기로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베트남 출신인 B씨는 20여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귀화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뷔 돌파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텁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